**성폭력 의식 제고**

**실제와 현황**

**전자기기를 사용한 학대**

**(Abuse via Technology)**

**옮긴 이: 이불쟁이(DSO)**

**저작물 이용허락 표시: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·배포·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**

* 젊은 인터넷 유저들 가운데 대략 7분의 1(13%)이 원치 않는 성적 유혹을 받았다.
* 젊은 인터넷 유저들 가운데 9%가 온라인에서 곤란한 성적 자료에 노출되었다.
* 가해자들은 유혹에 약한 젊은 이들을 찾는데, 가해자가 찾는 그 젊은이들에는 이전에 성적 혹은 육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온라인에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진/비디오를 게시한 적이 있거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섹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 이들이 포함된다.
* 젊은이들 가운데 25분의 1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인 유혹을 당한 적이 있다.
* 사건들 가운데 25%가 넘는 비율로(27%),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을 꾀어내는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본인의 성적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한다.
* 피해자는 대개 온라인 채팅방에서 인터넷 성폭력의 가해자와 처음 만난다. (76%)
* 인터넷에서 시작된 성폭력 피해자를 낳은 사건들 가운데 거의 절반은(47%) 가해자가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선물 혹은 돈을 제안한 적이 있는 것들이다.
*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해자들은 전문가들의 생각보다 피해자들과 온라인에서 친해질 때 속임수를 덜 쓰는 편이다. 고작 가해자들의 5%만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이 또래 나이라고 속였을 뿐이다.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성적 관계를 원하는,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이라고 말했다.
* 휴대전화를 소유한 10대(12-17세) 가운데 15%는 본인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나체/반나체를 연상시키는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고 답했다.
* 인터넷에서 시작된 성폭력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, 대부분은 기꺼이 가해자를 직접 대면했고 그 만남들 가운데 93%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답했다.
* 10대와 나이 어린 성인들의 72%는 사회가 디지털 폭력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답했다.
* 10대와 나이 어린 성인들의 11%가 본인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 혹은 문자 메시지로 공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. 그 가운데 26%는 본인이 사진을 공유한 상대가 다른 누군가와 그 나체 사진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.
* 10대와 나이 어린 성인들의 26%는 본인들이 섹스팅(12종의 섹스팅이 설문 답변에 등장했다)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, 이는 2011년보다 6% 줄어든 통계이다.
*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40% 가까이 전자기기를 통한 학대를 최소한 한 종류는 경험해보았다고 대답했다.

https://www.nsopw.gov/en/Education/FactsStatistics?AspxAutoDetectCookieSupport=1#technology